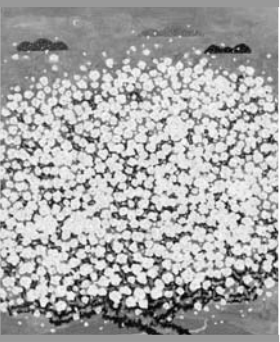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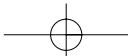
계간 **자** 201403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CONTENTS

표지이야기
정상섭 作, 바림항기 [53×45cm, 캔버스에 아크릴, 2013
조선대학교 회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운영위원 광주광역시 시민미술관 운영위원 광주광역시
장식심사위원으로 참여 한국미술협회원, 그들 점선면 회원, 전업작가 회원으로 활동 남평갤러리 (1994, 광주 첫 개인전 후 갤러리 도원(1998,
서울과 신세계갤러리(2007, 광주) 등 11차례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등, 주요 작품 소장처는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전주시방 검정청, 광주
시민미술관 등



	여는 시 정소리4	백추자
2	'창'을 열며 영어시대주의와 문화식민지	백수인
3	특집기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직 갈 길이 멀다 광주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문화전당' 가치를 이해시키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경쟁력 확보가 생명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박혜자 임동호 김하림 김 성 조덕진 이 연
16	문화인 탐구생활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제3기 - 이금례 할머니	김경인 김다이
22	문화현장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미래형 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도심의 봄소풍, 한없이 밝고 따스한 광주의 명소 - 광주극장	강원표 서연정
28	문화톡톡 나의 시적 본질인 아성과 기(氣) 시민과 함께 하는 싹틔줄 문화 1인 1문화시대, 나의 꽃은? 〈청년문화허브 무한〉 소개합니다!	범대순 한희원 김을현 정두용
38	이 생각 저 생각 일기의 진화	박소영
40	재단·회원 소식	편집부
45	2013년도 재단 세입세출결산 보고	
46	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창’을 열며

영어사대주의와 문화식민지

백수인 재단 이사장, 조선대 교수



3월이 되자 겨우내 썰렁했던 교정이 활기를 되찾았다. 꽃 같은 젊은이들로 활기차 보이는 대학들이 요즘 교육부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으로 잔뜩 긴장해 있다. 그 일환으로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도 ‘학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우리 학과(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교내의 ‘학과 평가’에서 꼴찌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살펴보니, 10개의 지표 중에 “영어강좌 비율”이란 게 있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에서 강의를 영어로 하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영어사대주의’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민족의 언어에는 그 민족의 얼과 정체성이 들어 있다. 따라서 문화의 창조는 바로 언어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은 사고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를 통해 사고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말(한국어)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적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편리성을 지닌 우리의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말인 ‘국어’를 천시하고 영어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공용 방송에서조차 우리말에 영어를 섞어 쓰는 일은 허다하다. 어린이들도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GT02 고릴라, RH03 레빗! 버스터 로봇들이 컴바인 오퍼레이션! 필살기 트랜션 플레시로 적을 무찌른다!” 이것은 6~8세 아이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만화 영화의 대사라고 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그레이보다는 카키 빛이 더 도는 카키그린 컬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것은 블랙이고요, 그리고 뺨놓을 수 없는 것은 초코브라운이죠.” 이것은 흡소핑 프로그램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말에 영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유식’해 보이고, ‘있어’보인다는 사대적 의식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의 이름도 영어 이름이 많

다.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영어가 우리말보다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영어사대주의’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자. 모든 국민에게 영어 공부를 강요하는 교육제도 등 각종 시험 제도가 이런 의식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제도 때문에 영어를 못하면 모든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회구조가 되었다. 우리 국민이 영어 사교육비로 1년에 쓰는 비용이 6조 5천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영어능력평가(토익 등)의 수험료로 미국에 지불하는 돈이 세계 국가 중 최고라고 한다. 현재 서울의 강남, 서초, 양천구에 집중되어 있는 영어유치원은 100개가 넘는다. 사실 외국어 실력은 모국어 실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론이다. 그렇다면 국어교육을 도외시한 영어 교육이 어떠하겠는가? 대학, 기업, 공무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곳의 문턱을 넘으려면 필수적으로 영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실력 기준의 한 가운데는 영어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 혹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영어 강의가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 한국인 교수는 공용어인 한국어로 강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 학생은 한국어로 강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가 되어 국어를 어떻게 가르칠까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조차 영어 강좌가 필요하다니 우리는 ‘영어사대주의’라는 병을 너무 깊게 앓고 있지 않은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의 사용을 금지시켜 강제로 언어식민지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을 더 쉽게 지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송두리째 말살하려 했다. 언어식민지는 곧 문화식민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나치게 영어를 사대하여 스스로 언어식민지, 문화식민지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집기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듣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직 갈 길이 멀다 박혜자_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광주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임동호_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장, 교육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김하림_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조선대 교수

‘문화전당’ 가치를 이해시키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김 성_광주문화재단 사무차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경쟁력 확보가 생명이다 조탁진_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이 연_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특집기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직 갈 길이 멀다.

박혜자_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2014년 1월 2일, 새해 첫 발의 법률안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문법으로 약칭)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직 출범 못한 상황에서 왜 특별법을 개정하려하는지 의아할 수도 있겠다. 특별법을 개정하려 먼저 움직인 곳은 현 정부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특별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더니, 2013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 등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시민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은 재원확보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특별법 원안대로 정부소속기관으로 가는 게 맞다'며 크게 반발하였다. 법인에 위탁할 경우 전당의 운영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전당의 성격상 공공성이 핵심인데 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공공성을 뒤로 하고 수익성을 따지게 된다는 것이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의 뜻도 완강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문화예술단체들은 법인으로 가는 것이 추세며, 문화예술영역에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잘될 것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부의 뜻이 완강할수록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반대도 커져갔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2014년 11월이면 전당이 완공예정이고 2015년 상반기에는 개관을 해야 하는데, 전당을 이끌어갈 운영조직을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한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등을 불러 공개토론회 하고, 간담회도 가졌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간극을 좁히기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로 간에 신뢰가 없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문체부의 말을 믿으려하지 않았고, 문체부도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단체의 대표들과 의원실 보좌관 등 5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먼저 밥

법인에 위탁할 경우 전당의 운영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전당의 성격상 공공성이 핵심인데 법인에 위탁하게 되면 공공성을 뒤로 하고 수익성을 따지게 된다는 것이 광주시와 시민단체의 이유였다.

부터 함께 먹도록 했다. 인간적인 유대감이 생겨야 논의가 쉽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번 만나고 3번 만나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생겼다. 사안을 한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개관당시 공무원 정원확보의 어려움을 예로 들며, 현실적으로 '공무원 200~300명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래서 광주시와 시민단체에 전부 위탁대신 일부만 위탁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 광주에서도 예산만 제대로 지원이 된다면 전문적인 분야는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재정지원을 강제조항으로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며칠을 각종 법률을 뒤적이다가 사례로 적당한 법을 찾아낸 것이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다. 서울대학교도 국립대학교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변경하면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 컸던 것 같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국가는 (중략)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국가의 재정 지원을 법에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유일하다. 아무튼 이렇게 선례가 있으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재정 지원도 강제조항으로 포함시키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5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지 두달 쯤 지나서 마침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장의 지위를 정부 직으로 보할 필요가 있으며, (2)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3)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전당에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4)또한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다. (5)중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하되,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등과 함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6)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ODA 금액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이 또한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아시아문화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공적 원조 기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장래 문화 관련한 국제기구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OECD가맹국은 국민총생산의 0.31%에 이르는 금액을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0.25%를 목표로 점차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금액이 2013년 기준으로 약 2조 500억에 달하는데, ODA 예산액의 1%만해도 약 20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ODA 금액은 점차 커질 것이므로 이 또한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아시아문화와의 교류를 위해서는 공적 원조 기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장래 문화 관련한 국제기구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모두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정부의 입장에 설 새누리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당의 일부를 외부법인에 위탁한다 하더라도 최소 100여명의 공무원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적으로 안전행정부의 권한이다. 공무원 몇 명 증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100명이 넘는 공무원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서울대법인화법 외에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사용한 법률이 없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아문법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공무원조직을 만드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4월 국회를 지나 하반기까지 아문법 개정을 위한 입법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광주지역 의원들과 연합하여 안전행정부나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도움도 절실하다. 광주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내는 주장을 저들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

특집기획

광주시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임동호_광주광역시의회 문화수도 특별위원장



지난해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 등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광주시 전체가 떠들썩했다. 당연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원안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부소속기관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정부가 법인 위탁을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손을 떼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시민·문화단체들은 특별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여러 번의 토론회와 간담회,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광주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의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본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교착상태에 있던 상황이 서로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박해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광주시, 광주시의회, 관련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종합된 의견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을 강제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전당이 공공성이 아닌 경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게 되므로 문화전당 본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4월 국회에서 박해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한 목소리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관련 시민단체들도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통해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올해 11월이면 전당이 완공되고 내년 전반기에 개관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수도 광주의 3대 문화컨트롤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아시아 문화개발원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현안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원활한 전당의 운영과 추진을 위해서는 더 이상 문화기관장들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15년에 정상적인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집기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에 관하여

김하림_범시민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조선대학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올 1월 2일 박해자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 되었다. 작년에 문체부가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광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한 반발과 반론을 제기하여 오랫동안 평행선을 그어왔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그동안의 언론보도나 박해자 의원의 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향후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 개정안’에서 많은 부분이 보장되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내년의 전당 개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에 의한 제도적 보장은 되었으나 그 내용이 전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중심으로 전당 콘텐츠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나 수준이 극히 의심스러운 상태이다. 지역적 적합성도 없고,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를 전망하는 내용도 없고, 아시아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당의 개관이야 ‘돈’을 집중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텅 빈 건물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현재까지 제시된 전당콘텐츠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 현재의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이후 꾸려질 ‘전당운영조직’의 상호 연계성이 치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인적 자원의 문제가 존재한다. 수준이 미달인 인력들이 현재 개발원이나 추진단에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낮은 수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먹튀’적 성격의 감독들도 있다. 따라서 전당운영조직이 올바르게 구축되어야 하고, 이 조직과 개발원과의 결합이 강화되고 인적 자원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넷째 전당 외 7대 문화권에 대한 구체적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전당만 고립된 섬처럼 존재해서는 문화적 파급력, 경제적 효과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당의 문화예술적 생산과 창조를 광주시로 파급해서 ‘문화도시’가 되려면, 7대 문화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별법은 2023년이면 효력이 만료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이나마 시작되어야 한다. 이 논의는 현재로서는 중앙정부나 문체부보다는 직접적 주체인 광주시민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당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하면 그 영광은 정부나 문화예술계로 돌아갈 것이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여파와 충격은 고스란히 ‘광주’에 남기 때문이다.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집기획

‘문화전당’ 가치를 이해시키면 해결의 길이 열린다

김 성_광주문화재단 사무차장



박해자 의원이 지난 1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문제를 핵심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정치적 절충과 합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어떤 정책이든지 기획-입안-실행 과정에서 변경은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이 특별법은 2006년 입법화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적으로 행정프로세스에 변화가 있었고, 그 동안 정권이 두 차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13년 문화전당 운영 논란은 2015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운영을 당초 특별법 상에는 국가가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특수법인에 위탁하려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광주시와 시민들이 모두 나서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가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문광부는 “첨단의 문화예술 영역을 행정 이 맡아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광주시민들은 “건물만 지어주고 빠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원안의 실행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박해자 의원이 나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립’으로서 책임을 지는 대신 일부 업무를 특수법인에 맡겨 문화예술사업의 특수성도 반영하자는 것이 큰 구도의 개정안 내용이다.

다섯가지 가치 창출...정부 이해시켜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 가지가 아닌가 한다. 첫째, 앞서 기술한 창조경제·균형발전·민주화·국제화·도심재생 등 다섯 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제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국제적 사례와 이론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문화전당을 성공키면 다섯 가지의 가치가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성공 프로젝트는 다시 아시아 각국에 벤치마킹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2차 산업처럼 적절한 공무원 배치

와 재정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전 국민에게, 아시아인들에게 문화전당이 가지고 있는 미래적 가치를 소개하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단순히 광주에 세워지는 문화시설로 치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문화예산을 통째로 광주로 끌어간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수도권에 예술가들 가운데는 완공도 되기 전에 결국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 공생공영하는 대안임을 설득해야 한다.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아시아인들에게 그들의 문화전당이라는 동의를 받아본 적이 없고, 홍보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외 토론회를 활발히 전개하여 시각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정부도 문화전당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다.

문화기관 속속 이주... 여건 충족돼

셋째, 지역사회도 정부와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문화전당 건립 취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 예술의전당 광주 분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적잖은 수익을 내고 있다. 공연·전시 시장(市場)이 크고 대관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전당은 공연·전시·창작·문화정보 저장·교류의 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전례가 없는 시설이어서 실험기간이 필요한 형편이거, 지방이라는 이유로 시장 역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광부가 특수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려고 하여 “하드웨어만 구축하고 정부가 발을 빼려고 한다”는 오해를 지역사회에서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문광부는 현재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발전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여건도 나쁘지 않다.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광주시는 아시아 여러 도시들과 문화콘텐츠의 공동 제작들을 제안해 놓고 있다. 문화창조도시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련 관계자들의 광주 정주(定住)여건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전당 운영과 관련해 광주·전남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정부로서도 끝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문화전당과 관련된 정부기관은 문광부 외에도 공무원 정원을 배정하는 행정안전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이 있다. 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당사자는 국회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과 정부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이러한 지역적 환경과 문화의 산업화를 이해시키는 노력도 적극 펴야 한다.

지금 미래의 문화창조자를 꿈꾸는 수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문화전당의 참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더 발전된 미래 문화산업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고 입법화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본다. 

특집기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 경쟁력 확보가 생명이다

조덕진_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 연말 완공되고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거세게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건물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완공되는 건물에 입주 기관의 법적 지위를 다시 짜고 있다. 도대체 전당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서움증이 일 지경이다.

이는 인근 홍콩이 2017년 개관할 미술관 관장을 지난 2011년에 세계 최고의 미술관인 영국 테이트 모던 초대관장을 영입한 것과도, 인근 싱가포르가 비슷한 복합문화시설인 에스플러네이드 콘텐츠 준비에만 5년을 공을 들인 것과도 비교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문화융성’을 정부 국정 4대 기조로 발표하고 나선 새정부 출범 직후에 그렇게 등장한 문화전당 법인화 문제가 올 정기국회가 가동되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 개관 준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열린 세미나를 이달과 다음달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이제 콘텐츠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인가 법인화인가, 법인화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는 논쟁적 이야기에 앞서 처음을 다시 차분히 들여다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광주에 건립되지만 문화전당은 광주시민이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아니다. 문화전당은 규모나 외형에 있어서 인근 싱가포르의 에스플러네이트나 프랑스의蓬피두센터보다도 규모나 훨씬 크다. 외형적 물리적 공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할 뿐 아니라 문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기치로 내건 거대 프로젝트다.

이처럼 규모나 지향성에 있어서 정부로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화융성’을 국정 4대 기조로 내건 정부라면 말이다. 당초 꿈꿨던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복합문화기관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지가 절대적이다.

전당의 기구에 관한 법적 성격을 논의하는 마당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 정체성이 규정되더라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기반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

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자체가 매우 위험스럽다. 이런 의심은 준비과정에서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관이 코앞에 닥쳐서야 조직과 콘텐츠를 논하고 있는 형국인데 그나마의 준비도 엉터리로 보인다.

콘텐츠 준비 등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을 ‘외부자문’을 방패로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전당 핵심인력 역시 ‘내부 추천’을 명분으로 국내에서 조용히 선발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든 과정은 전면 개편해야 한다. 콘텐츠와 같은 전문영역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제라도 전문 영역은 전문가에게로 넘겨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당에 세계적으로 역량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일이 진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법 규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또 그나마의 규정이나 법이라도 없으면 강제력이 없어 위험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법을 잘 만드는 일 못지않게 정부나 전문가, 지역사회가 톱톱 뭉쳐 잘 만들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정책으로, 사람으로 반영돼야 한다.

법인화를 밀어붙이는 정부는 형식논리에 빠지지 말고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여야 한다. 결국 국가의 부담이고, 국가적 손실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당의 중요기능 중 하나인 연구기능이 빠졌다는 점에서 전당의 기능과 성격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형국이다. 정부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박해자 의원실에서 광주시와 문화관광부, 지역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역 사회 안은 전당의 장기적 생존 전략 측면에서 우려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전당의 지향성과 장기적 경쟁력을 담보할 ‘예산’과 ‘연구’, ‘교육’ 기능을 담아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책임 운영을 위해 ‘전당 운영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고,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토록 했다. 또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개편’하고, 아시아문화원의 사업을 아시아문화의 연구·홍보, 아시아문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등과 함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크게 요약하자면 ‘전당 운영의 일부 법인 위탁’, ‘예산 정부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전당에 절실한 최소한의 요건들은 담아냈다.

다만 가능하다면, 중요 직책에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대한 세척이라도 담아보면 어떨까 싶다. 전당마저 전리품으로 정권에 휘둘리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예술의 전당 사장 논란처럼.

또 하나는 연구와 교육부문이 좀 더 강화되면 좋을 듯 싶다. 세계최고 규모인 만큼 장기 전략이 절대적이고, 그 핵심은 교육과 연구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장기비전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모든 관심과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특집기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이 연_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4년 10월에 준공하고 2015년 3월에 개관 예정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복합문화 인프라 시설로서 세계적인 문화발전소이다.

준공과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문화전당 운영 주체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누가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동안 특수법인에 위탁하자고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고, 우리 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전당의 운영은 정부 소속기관으로 해야 운영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 해 4월부터 국회 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의 간담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포럼 위원들의 문화부장관 방문, 기자회견, 방송사 토론회, 각종 언론사 컬럼 기고 등을 통해 특별법안 개정 반대 의견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또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범시민연석회의를 지난해 8월부터 구성하여 정부특별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특별법 개정안 철회 요구 등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긴급 대응 체제를 공동 구축해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시의회와 시청 노조 및 문화예술단체들도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건의안 채택, 국회 상경 투쟁 등 한목소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이 전당 운영을 왜소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노력이 지난 1월 2일 박혜자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특별법 개정안'은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한 '대체 입법'으로 발의됐다. 새로운 법률안은 문화전당의 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문화전당의 운영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아시아문화원 등에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위탁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문화전당운영협의회'를 두고,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며,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 영역도 확대한다. 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우리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로 탈바꿈시킬 국책 프로젝트이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적 문화 도시로 광주가 거듭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그런 전시민적 열망과 희망의 국책 사업의 마지막 고비를 잘 이겨내도록 우리 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 시는 이 법률안이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또 아시아 문화원의 역할을 연구, 홍보, 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당 운영을 통해 광주시 문화 산업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일정 정도 반영된 법률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발걸음이 멀다.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 심사에서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시와 시민들이 이 법률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한 목소리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안정적인 전당 운영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 법률안의 심의와 국회통과 과정을 점검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국회 교문회 회부, 법안소위 검토, 교문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및 심의 의결 과정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그러나 반드시 이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관철시켜야 광주시의 미래가 담보된다.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정부-광주시-시민단체-광주시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우리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로 탈바꿈시킬 국책 프로젝트이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적 문화 도시로 광주가 거듭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그런 전시민적 열망과 희망의 국책 사업의 마지막 고비를 잘 이겨내도록 우리 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문화인 탐구생활_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

“가슴을 두드려라...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김경인 <광주일보> 기자



‘청춘사업’ . 국립국어원 국어대사전에서는 청춘사업을 ‘연애를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화를 더해 ‘청춘문화사업’ 을 만들면 어떨까. 문화를 통해 청춘들의 꿈을 찾아줄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3월 광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문을 연 청춘문화기업 스토리박스(STORY BOX)는 그런 곳이다. 말 그대로 청춘들의 인생에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강연 전문 문화기업이다. 강연이라는 ‘과목’ 을 만들어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치, 지혜, 경험을 전해주는 일을 한다. 말이 기업이지 직원은 강수훈(32) 대표 단 한 명이다.

‘초짜 문화자’ 강 대표는 법관을 꿈꾸던 법대생이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오직 ‘사법고시 합격’ 을 위해 달려왔다. 다른 청춘들처럼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을 꿈꾸기도 했다. 대학생활의 낭만보다는 오직 스펙 쌓는데 몰두했던 청춘을 보낸 사람이기도 하다.

“따스한 봄날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문득 ‘내가 지금까지 뭐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니 추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강연이었죠. 대학생활 동안 가장 즐거웠던 것이 강연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좋아했던 강연을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강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지역의 인디뮤지션들과 공연을 만들고 싶어 기획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진행된 ‘강수훈의 SOON SHOW’ 는 유료에도 불구하고 매진을 기록하며 순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다. 주위에서는 “네가 뭘데 이름을 걸고 유료 공연을 만드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SOON SHOW’ 라는 이름도 ‘곧 또 만나자’ , 즉 토크 콘서트가 2회, 3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

“네가 와서 공연 한번 해죠”라며 재능기부를 강조하는 지역 문화계 현실이 싫었어요. 예술가들이 ‘원 플러스 원’ 도 아니잖아요. 평생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고, 평생 악기를

연주해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뮤지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어요. 벌써 다음 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사는 이야기’ (그사이)는 강 대표가 가장 먼저 기획한 시리즈 강연이다. 남광주역 푸른길 기차에서 진행되는 그사이는 단순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사들의 성공담을 들려주는 강연이 아니다. 강연자로는 26초마다 옷을 한 벌씩 파는 인터넷 쇼핑몰 바가지머리 손석호 대표, 커피북는집 이영숙 대표, 넥스트컨버전스 안창주 대표(전 삼보컴퓨터 사장), 고도소프트 전수용 대표 등을 초대했다.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있는 스토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야기,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연자들에게 항상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나 이거 하려고 얼마를 빚졌다 등 솔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강연자 중에는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웃음)”

이 밖에도 야구 해설자 하일성씨, 그루폰 최연소 본부장을 지낸 강남구 대표, 핸드스튜디오 안준희 대표 등을초대해 대형 강연을 기획하기도 했고, 지난 2월 열린 ‘김제동 토크콘서트’ 등 수많은 공연, 강연에 협업 업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최근에는 지역 문화단체들과 손잡고 조선대 후문 도내기 시장 옆에 복합문화공간 ‘청춘 아고라’ 를 만들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연기획 전문 에스홀리데이, 조선대 공공디자인그룹 점선면이 함께하고 있다. 젊은이들과 지역 어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도 있구요.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토리 박스의 강연 정보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www.storyboxes.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인 탐구생활_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 제3기 이금례 할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김다인 <광주시민의 소리> 기자

무릎교육, 할머니의 그리운 ‘옛날이야기’
조손간의 대화, 유아 인성교육 효과 ‘톡톡’

“옛~날 옛적에~ 키가 엄~청 큰 키다리, 물레방아를 돌릴 정도로 콧김이 쎄 콧바람, 아파트 집채만 한 짐을 질 수 있는 돌쇠, 백발백중 새를 떨어트리 는 돌팔매 네 친구가 만나 길동무를 하고 길을 가고 있었답니다.”

깊어가는 밤 호롱불 밑에서 잠을 재워주려던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들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옛날이야기. ‘옛날, 옛적에’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눈이 반짝이고, 귀가 쫑긋 올라간다.

“우리 강아지, 여기로 와봐. 할머니가 옛날이야기 들려줄게~” 호랑이가 담배피던 시절부터 함께 살아왔을 것 같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는 짧지만 그 내용 속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담겨 있다.

재미있고, 무서운 옛날이야기

할머니 곁에서 옛날이야기를 듣는 무릎교육 만큼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좋은 전통방식은 없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는 거의 제목이 없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이야기의 제목이다.

가끔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는 무서운 호랑이와 도깨비도 등장해서 무서움에 치맛자락을 끌어당기기도 한다.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은 할머니의 옛날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어 간다.

이렇게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이금례(72)씨를 만나러 북구 연제동에 위치한 자택을 찾아갔다.

이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 온 유자차를 건네며 따뜻하게 아랫목에 들어오라며 “뜨끈 뜨끈하게 군불 지퍼 논 곳에 안겨~ 따습제?”라며 반갑게 맞이해 줬다. 명절을 앞두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가듯 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할머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공개모집해 지난 2011년 제3기 이야기할머니로 뽑혀 3년 동안 활동해온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재미있고, 오래된 이야기보따리가 가득했다.

손자 세대에게 이야기 전달하는 역할

전남 담양군 수북면이 고향인 이 할머니는 어린 시절 늘 자신의 할머니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할머니 사업에 더욱 애착이 간다.

“나 어릴 때는 할머니 무릎에 누워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잠들곤 했었어. 근데 지금 애기들은 이런 추억거리가 없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찡하지”라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화가 빨라지고, 핵가족화 및 부모의 경제활동 증가로 유아기의 인성교육의 교육주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적인 인성교육 방법이 실종된 지금의 아이들은 유해한 환경에 많이 노출

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꽃보다 아름다운 할머니들’이 나선 것이다.

이금례 할머니의 집 한편에는 붓과 먹물, 벼루, 화선지가 가득했다. 평소 문인화와 서예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이 할머니는 보람 있는 일을 찾기 위해 광주 요한병원에서 호스피스로 봉사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이야기할머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맞아! 딱 내가 해야 할 일이네. 옳지, 내가 찾던 게 딱 바로 이거네”라며 원서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정성들여 작성하고, 마감 날에 맞춰 빠듯하게 접수를 했다고 한다.

이후 광주에서 전주까지 먼 길을 가는 열정을 보이며 면접을 통해 ‘이야기 할머니’가 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안

동에 있는 터라 2박 3일 교육으로 광주에서 안동까지 걸음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할머니를 포함해 광주지역 17기로 50명이 선발됐다.

긴장과 설렘이 가득했던 첫날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귀엽고 예쁠 수가 없지. 한번은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한 아이가 달려와서 ‘와~ 이야기 할머니 오셨다~’라고 소리치며 외락 안기더니 반 아이들 전체가 달려와서 서로 안아 달라고 해서 넘 어질 뻔한 적도 있어”

장시간의 교육이 끝나고 처음으로 유치원을 방문하기로 한 날, 이 할머니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외에 책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로 외워서 아이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떨렸기 때문이다. 머릿속이 하얀 백지 같았다. 다행히 아



이금례 이야기 할머니는 유치원을 찾아 아이들을 위해 옛날 옛적 이야기본따리를 가득 풀어놓는다.

이들은 너무 반갑게 이 할머니를 맞이해 줬고, “할머니~ 더해주세요!”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이 할머니는 주변 지인들에게 안 입는 한복을 대여해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간다. 그래서 집에 있는 한복만 해서 색깔별로 7~8벌 정도가 된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예쁜 색깔 한복이 많아? 나도 한복 입고 싶어~하나 해줘요~”라고 애교를 피우는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 예쁘다고 한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어머니 머리에 있는 이를 없애주기 위해 머리를 맞고 잔 효심이 지극한 주세붕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너무 뿌듯했다고 한다.

“주세붕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어른들도 외우기 힘든 오문가를 적어달라고 해서 종이에 곧바로 적어서 줬는데 너도나도 달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 “저 멀리 떨어져 탄 것을 하던 아이들 달려와서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 왜 이렇게 짧아요’라고 할 때는 다 듣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지”라고 설명했다.

미래세대 소통과 전통문화 전승 동참

이제는 멀리 떨어진 아이에게도 잘 들릴 수 있도록 눈빛으로 교감하며 사랑의 충알을 쓰고, 정성껏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지만 아이들의 이름까지 정성껏 외우고, 소곤 소곤 귓속말을 하면서 아이들과 교감을 한다. 가끔은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그럴 때면 “애들이 가끔 맞춤법 하나도 바로 잡아 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애들이라고 모를 것 같았지만, 애들 앞에서 작은 말 실수도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 조심하게 돼”라며 아이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게 많다고 한다.

앞으로 이 할머니는 “얌전한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멀리 떨어진 아이들도 진심을 담아 사랑을 주면 다 통하게 돼있어~”라며, “교훈적이면서 재미있는 옛 이야



평소 문인화와 서예가 취미라는 이금례씨.

기, 우리 주변의 미담을 들려줘서 아이들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조손간의 문화적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

문화현장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미래형 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강원표_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제나 가야에 비해 알려져 있지 않은 영산강 유역의 문화재와 역사자료를 조사·연구·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삼국시대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3번째 국립박물관인 나주박물관,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박물관 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립나주박물관 전경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은 지난 2013년 11월 22일(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3번째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나주 반남고분군이 나복암리고분군과 같이 고대의 대규모 유적들이 남아 있으면서도 백제나 가야에 비해 알려져 있지 않은 영산강 유역의 문화재와 역사자료를 조사·연구·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삼국시대 문화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또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발굴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호남지역출토 문화재를 보관할 광역수장고(2,101㎡)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지역 유적과 문화재를 활용한 서남부권의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유적공원 박물관

전남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자미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나주박물관은 나주시내로부터 영암방향으로 구불구불한 한적한 도로를 타고 20여분 달리다보면 도착할 수 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1,500여년 전에 축조한 반남고분군의 유적 속에서 느림과 치유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을 초대하는 박물관이다. 나주박물관은 신촌리고분군, 대안리고분군, 덕산리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사적 제513호 반남고분군 안에 자리잡은 '고분군 속의 박물관'이다. 나주박물관 옥상은 일반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원으로 꾸며놓았고, 옥상정원에 올라가면 고분 곁에서는 살피볼 수 없었던 신촌리고분군과 대안리고분군의 모습과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고대 마한문화를 조명하는 박물관

나주박물관은 대지면적 74,295㎡에 지하1층, 지상



1



2



3

1. 금동관 나주 신촌리 9분 출토(국보 제295호)
2. 새무늬형동가-함평수동유적 출토
3. 서수형토가-해남 만의총고분 출토

2층의 건축연면적 11,086㎡의 단일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실은 상설의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특별 전시를 위한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실은 전라남도 역사의 흐름을 영산강 유역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과 바다로 연결된 지리적 환경 속에서 성립된 교류의 문화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용관고분으로 대표되는 영산강 유역 고대 고분문화의 전개와

특징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였다. 나주 신촌리 9호분에
서 출토된 금동관(국보 제295호)은 영산강유역의 웅관
고분 세력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다.

제2전시실은 고분과 고대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
의 개념을 이해하고, 유적과 유물을 발굴·보존·연구
하는데 대한 지식 습득을 돕는 체험 전시 및 개방형 수
장고를 도입하였다. 국립박물관 최초로 시도되는 개
방형 수장고는 박물관 직원들만이 드나들 수 있었던
박물관의 가장 깊은 공간인 수장고를 일반 관람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창을 설치한 곳이다, 또한 박
물관 직원들이 유물관리 모습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나주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을 생생하
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문화영역에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전시기법

나주박물관은 좋은 유물의 전시 못지 않게 관람객
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전시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모형, 복원품, 디오라마와 같은 재현품을
요소에 배치하고, 폭 15m의 대형영상을 비롯한 다양
한 영상 및 AR(가상현실) 영상을 활용하여 관람의 이
해와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나주박물관은 IT강국의 통신기술을 문화
영역에 접목하여, 국내 박물관 최초로 스마트폰의
NFC기술(접촉감지 어플)을 이용한 전시안내시스템을
전시실 전관에 도입하였다. 국립나주박물관을 찾는
국내외 관람객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다운 없이 전
시내용을 안내받고 이를 다시 SNS 상에서 서로 주고
받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

나주박물관이 도입한 NFC 기술은 사용자가 자신
의 NFC 단말기(스마트폰)을 진열장에 부착된 NFC



1. 금관 관모장식·나주 북암리 3호분 7호석실 출토 2. 상설전시실 웅관 전시모습 3. 백제시대병·나주영동리1호분 1호석
4. 국립나주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관람모습 5. 국립나주박물관 전경(야경)



국립나주박물관 로비

태그에 가져가 대는 '터치' (Touch)로 인식하여 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음성안내나 PDA안내기
처럼 대여와 반환 절차의 번거로움이 없고, 기존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안내방법과 같이 별도의 앱을 설
치할 필요도 없으며, QR코드 안내방식처럼 화면을
보고 일치시켜서 인식을 해줘야 하는 불편이 없는 방
식이다. 관람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진
열장이나 설명판에 부착된 태그에 갖다 대는 것만으
로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는 NFC기능에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 소지자를 위한 단말기 대여서
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나주박물관 개관의 의의

나주박물관의 건립이 처음 추진되었던 때는 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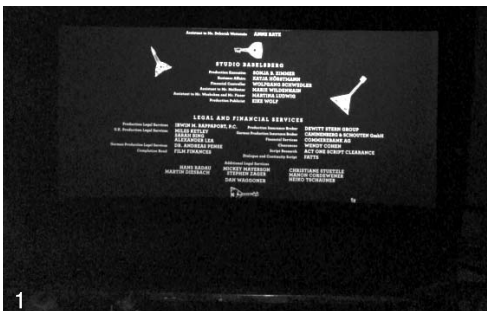
이었다. 당시 '국립삼한박물관'이라는 타이틀로 건립
이 전라남도에서 건의되어 건립타당성 기초조사가 진행
되었으나 IMF의 여파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2006
년부터 재추진되었고, 2007년 건립이 확정되었고,
2009년 12월 첫삽을 뜨게 되었다. 이후 4년여간이 공
사를 거쳐 2013년 8월 완공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1
월 역사적인 개관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건립된 나주박물관은 그
위치가 유적지이다 보니, 도심에 위치한 다른 국립박
물관에 비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현재까지 새로운
박물관에 대한 기대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고 있
다. 하지만 향후 나주박물관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
을 위해서는 박물관 구성원들의 노력은 물론,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현장

도심의 봄소풍, 한없이 밝고 따스한 광주의 명소 - 광주극장

서연정_시인



1. 엔딩크레딧
2. 로비풍경- 화사한 메모지 꽃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시간……. 낱알의 고통스러
운 에피소드들이 위트 넘치게 조합된 영화 <그랜드 부
다페스트 호텔>은 아름다웠다. 욕망과 살인, 광폭한 전

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슈 구스타브'는 희망의 다
른 이름이 되었다! 시끌벅적한 매점이 없어서 느긋느
긋한 기쁨기라곤 느껴지지 않는 정갈한 환경, 오직 영
화에만 몰두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에서 보았기에 더
욱 여운이 남는다. 두 번의 종소리와 무릎담요가 좋아
서 소풍객처럼 밝은 표정으로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
광주극장의 밝은 미래가 보인다.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62번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현재 좌석 수는 856석이다. 광주극장은
2002년 12월,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처음 선정되었다. 그 후부터 예술영화, 독립영화, 실험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작품성의 영화를 상영해
왔다. 커피 작은 컵 한 잔에 500원인 극장 매점은 조출
하고 소박하다. 무심한 벽면에 화사하게 피어 있는 메
모지 꽃들을 어찌 지나치랴.

층계를 올라가면 1940~70년대의 극장 사진,
1940~60년대 영사기, 1970년대 초 포스터 등이 전시
되어 있다. 영화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영자의 전성
시대> 등의 간판도 보인다. 영화가 시작되기까지 여유
가 있다면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여행을 할 만하다.
1930년대 광주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극장이 있었



◎광주극장



1. 최근 극장 모습-고즈넉한 도심의 봄날 2. 전시중인 영사가-추억여행 3. 1946년 광주극장의 모습

다. 그렇지만 입장부터 조선인을 차별하기 일쑤였다.
지역문화운동을 선도하던 이들은 조선인 자본의 문화
공간 건립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었다. 상업과 교육
사업에 주력하던 유은 최선진 선생은 이러한 뜻을 모
아 1983년에 광주극장을 설립, 1985년 10월 1일 개관
하였다. 광주극장측 자료에 의하면, 개관시 수용인원
이 1,250명이었는데 1985년 광주부 인구가 52,614명
(조선인 44,715명)이었다니, 극장의 규모가 상당히 컸
음을 알 수 있다.

개관 이래 광주극장은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민족
의식 고취에 힘쓰는 명실 공히 광주의 문화 교육 계몽
운동이 벌어지는 무대였다. 한국영화와 악극단, 창극
단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집회, 학예회, 졸업식, 음악
회, 연극 등 각종 공연이 열리며 격동의한국 근대사를
온몸으로 지켜보았으니 광주 사람들의 문화를 증언하
는 삶의 현장이라고 할 만하다. 1930년대의 건물은 큰

화재를 입어 완전히 소실되었고 지금의 모습은 1960
년대에 다시 지어진 건물이다.

같은 자리에서 80살을 먹은 극장, 물신주의 시대를
굴건하게 버티는 위대한 정신의 힘이 느껴진다. 이러
한 힘이야말로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현실을 견디어내
게 하고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사유하도록 북돋
아줄 것이다. 인산인해를 피하면서 생활에 활력을 불
어넣는 봄날의 소풍지로 어디가 좋을까. 광주극장 인
터넷 사이트(<http://cafe.naver.com/cinmagwangju>)를 찾으면 친절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지랑이
퍼듯 번지는 추억과 조우하고 싶은가? 자기 안의 세계
를 들여다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가? 마음이 이끌리
는 곳, 그곳에 광주극장이 있다. 변함없이 든든한 오랜
벗처럼. ♪

문화특독

나의 시적 본질인 야성과 기氣

범대순 시인

나의 시에 있어서 氣는 대륙적이고 싶고 남성적이고 싶고 영웅적이고 싶어 한다. 소극적이고 일상적인 것, 여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이다. 가람이나 소월이나 영랑, 목월적인 것으로부터 탈출이랄까 비약이기도 하다. 나의 시에서 의미를 꼭 찾으려들면 다소 실망할 것이다. 아니다. 추상적 색깔을 만나면 된다. 그것이 나의 시이고 나의 예술이고 나의 氣이다. ... 나의 시의 야성은 氣思想, 氣哲學, 돈키호테, 디오니소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19일 문학의집 서울, 초청으로 문학 강연을 하게 되었다. 그 소식란에 내가 기계 시인이고, 백지 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전쟁이 끝난 전후의분위기에서 반인간적인 기계, 즉 인간 살상의 도구인 기계를 예찬하여 새로운 시적 활기를 모색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 생각은 전쟁으로 氣죽은 전후의 젊은이들의 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 氣를 상징한 것이 불도우자 같은 괴력을 가진 기계라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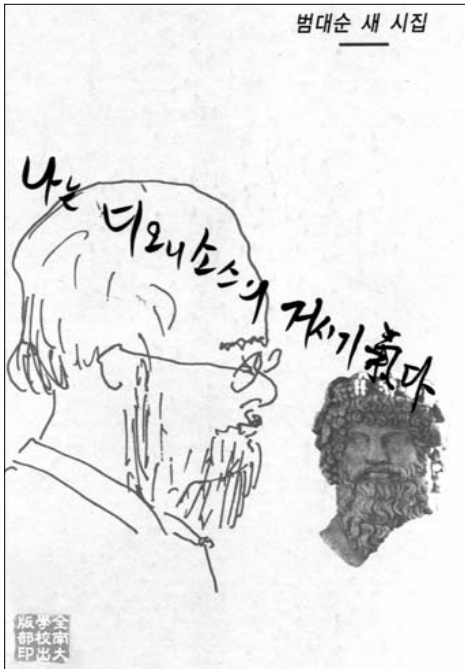
휴전 후 미군의 대민 사업의 일환으로 불도우자가 내가 전후 뒤늦게 복학한 고려대학 건물 짓기 위하여 작업한 현장을 흥미롭게 구경한 적이 있다. 충격적이었다. 불도우자는 보통 성인의 300배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운반수단이 지게나 리어가 또는 우마차 같은 원시적이었던 당시의 한국적 노동실상에서 불도우자의 등장은 환상적 변혁을 만들어 냈다. 순

식간에 산 하나가 무너지고 순식간에 연못 하나가 생겼다. 나는 어렸을 적에 인근 산간 마을에서 저수지 공사를 한 현장을 구경한 적이 있다. 개미 같은 무수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지형이 서서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 일은 여름 3개월이 걸렸다. 작은 저수지 하나가 생겼다. 불도저 하나의 작업능력으로 그 작업은 일주일 분이다. 일본군이 패망하기 전 미군 해병대에 섬 하나를 내주고 그곳에 비행장을 건설하자면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하고 그에 맞게 작전을 세웠다. 그러나 미군은 일주일만에 그 섬에 비행장을 건설하여 비행기를 띄웠다. 산 같은 땅을 밀고 그 땅위에 뽕뽕다리를 깔아서 활주로를 건설하여 상상도 못하는 시일에 일본군을 공격할 비행기를 띄웠던 것이다. 그때 일본군 사령관도 나만큼이나 불도우자의 초인적인 괴력에 놀랐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50년대에 쓴 나의 첫 시집의 특징은 지훈 선생이 그 서문에서 지적한 대로 기계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너무 이질적인 서정시가 있고 숫자로 세어보자면 훨씬 더 많은 서정시가 들어 있다. 지훈은 그것을 무시하였다. 목월 선생이 낸 시리즈의 일환으로 낸 내 두 번째 시집의 면모는 또 달랐다. 나는 그날



『무등산』, 범대순 시집



『나는 디오니소스의 거시기이다』, 범대순 시집

의 강연에서 ‘나의 시적 진실인 야성’이라는 제목을 내세웠다. 야성의 입장에서 나의 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의 다른 측면인 사회의식이나 기승전결, 또는 ‘아름다운 가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다양성 속에서 내가 평생 시를 통하여 야성, 즉 氣를 추구해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氣는 生氣 活氣 勇氣 浩然之氣 精氣 霸氣 氣運 氣魄 電氣 客氣 稚氣 雅氣 殺氣 등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생명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흔히 아이의 氣를 죽이지 말라 라든지, 저자는 氣가 너무 승하다 라든지 하는 말로 기를 무엇인가 종합적인 생명력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서 일상에서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단순하면서 종합적인 원초적이고 야성적이고 원색적인 기본적 힘이나 기질 즉 생명력을 말한다.

다. 먼저 최근의 시집 『무등산』을 소개하면서 나의 초상을 그린 출판사의 보도자료의 첫머리를 인용해보자.

“범대순 시인은 젊다. 무등산을 타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시가 그렇다. 사실은 교회에다 한 순배 반을 더한 나이이지만 (그는 1930년생) 그는 야성의 시인이고 낭만의 시인이기도 하다. 그의 시집 『무등산』을 읽으면 그의 야성과 광기는 돈키호테를 연상시키고 그리스 디오니소스를 연상시킨다. 이 시집을 해설한 평론가 김형중의 말에 의하면 그는 白鬚 狂士, 즉 하얀 수염의 미친 선비다. (그의 무등산 산행은 긴 수염이 그대로 풀린 채 나부끼는 것이 특징이다.) 하얀 수염의 미친 선비는 무등산에서 하나의 오브제이고 하나의 설치 미술이다. 이는 그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무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오래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위의 글은 나의 최근 시집 『무등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나의 시집 『무등산』이 야성 즉 기에 넘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면 사실상 나 또한 그 氣 즉 야성 또는 생명력을 시집 『무등산』에서 발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무등산에서 미친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방향이 없이 쏟아지는 비가 미쳤다

알게 구멍이 난 하늘이 미쳤다

화살같이 쏟아지는 물이 미쳤다

또 이런 시도 있다.

무등산이 불이었을 때

무등산은 시인이었다.

너털경이 불로 살아 있을 때

절벽과 돌기둥과 봉우리는 시인이었다.

이렇게 나의 시에 있어서 氣는 대륙적이고 싶고 남성적이고 싶고 영웅적이고 싶어 한다. 소극적이고 일상적인 것, 여성적인 것에 대한 거부이다. 가람이나 소월이나 영랑, 목월적인 것으로부터 탈출이랄까 비약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담론의 주제인 야성이란 무엇일까. 영어로 야성을 번역하자면 vitality이다. vitality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력이다. 즉 야성은 생명력인 것이다. 즉 나의 시적 진실은 생명력이라는 뜻이다. 나의 시 삼백을 일언이폐지하면 생명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생명력 때문에 미치고 나의 광기는 생명력 때문이다. 시인이 시적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분노하고 미치고 광기를 부린 것이다. 일체의 비시적인 것에 대한 분노, 광기는 시인이 무관의 제왕의 시절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의 시에서 의미를 꼭 찾으려들면 다소 실망할 것이다. 아니다. 추상적 색깔을 만나면 된다. 그것이 나의 시이고 나의 예술이고 나의 氣이다.

나의 시의 야성은 氣思想, 氣哲學, 돈키호테, 디오니소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도올 김용옥이 한 세계철학자대회에서 氣哲學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논급했을 때 서양 철학자 대부분이 퇴장해버렸다는 일화를 나는 흥미롭게 생각한다. 氣는 서양의 일상적인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의 시에 있어서 氣도 어찌 보면 헛소리 같고 미친 소리 같을 것이다. 일반적이지 못하고 따라서 보편성이 없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론 그 느낌은 오늘의 한국시가 너무 여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일상적이고 소극적이면서 파격을 모르고 타성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나의 시는 일상이나 理性이나 오늘의 시적 관성에서 찾으면 안 보인다. 氣란 생명 그 자체이고 생수처럼 그릇을 만나기 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이다. 솟아오르거나 흐르거나 수백이 되어 스미거나 하는 자연, 인간의 피 같은 그 생명, 오염되지 않은 흙이나 땅 또 하늘 말하자면 원시그대로의 상태이다. 氣는 나의 시집 『디오니소스의 거시기다』 속에 거시기와 같은 어감과 상징성에서 절정을 이룬다. 나의 시집 『나는 디오니소스의 거시기다』는 문제시집이었다. 나는 그 시집에 침묵한 한국평론계에 실망하고 있다. 참고로 말하자면 시집 『무등산』의 서문의 제목은 ‘잊어버린 무등산의 원시를 찾아서’이다. 이는 곧 무등산에서 야성적인 것, 생명력, 대륙적이고 남성적이고 영웅적인 것 즉 氣를 찾는다는 것이다. ♪

문화특독

시민과 함께 하는 실핏줄 문화

한희원 화가, 시인



동아시아 문화의 빛 광주 리플렛

문화란 무엇인가? 요즘 하도 문화라는 말이 화두의 중심에 있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본다.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정신적인 형태를 ‘문화’라고 할 것 같은데, 문화를 유독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시대에 문화의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행복,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문화를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문화는 오랜 역사 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흐른다. 스며들어 꽃이 피우는 것이다. 그런 스며들이 하나하나 사회구성원의 감성적 사고에 의해 드러났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광주는 바야흐로 문화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중이며, 몇 년째 계속되어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단계에 있고, 올해 광주비엔날레를 필두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동아시아도시의 문화교류,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이제 내년이면 국내외 방문객들이 몰려와 바야흐로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문화가 곳곳에서 펼쳐지는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문화의 외곽이 아닌 같이 느끼고 즐기며 행복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 시민과 지역의 문화인들이 배제된 채, 진행되고 조성되면 그 소외감은 더할 것이다.

문화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로와 감동, 행복을 주는



방림2동 주민과 함께 만들었던 2013 미밋들 마을축제

존재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오래되었으나 견고 싶은 이야기가 숨어있는 골목길, 도시 곳곳에 안식을 주는 숲길, 동네에서도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작은 미술관,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이 지역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문학관이나 박물관, 길을 걷다 만날 수 있는 거리공연, 오랜 역사가 묻어있는 곳곳의 손때 묻은 건물들, 젊은 화가나 배우들이 힘겹게 준비한 전시장과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 도시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널려있는 예술과 문화가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루어내면 도시는 더욱 진정한 예향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마을의 전설을 각본하여 연극을 하고, 마을을 그려서 마을회관에서 전시도 하는 시민들이 창작하는 활동까지 이어지면 도시 곳곳에 살아있는 문화가 숨 쉬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행정을 위임받은 책임자들과 문화기획자, 전문행정가들이 가장 낮은 곳의 문화에도 눈길을 주고, 시간을 내어 찾고 애정을 가질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새가 양 날개가 있어야 날듯이 문화도 큰 규모의 행사와 삶 속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이다. 실핏줄이 막혀있는데 심장만 크게 뛰면, 인체 곳곳에 피로감이 쌓이고, 실개울이 없는데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없는 것이다.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과 문화종사자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유지하고 있고, 예향의 도시라지만 이 지역 출신의 뛰어난 예술가들의 자취가 묻어있는 미술관, 문학관 하나 변변찮으면 실개울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물이 스며들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광주는 모든 시민들의 삶속에 조용하면서 깊게 스며드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규모 있는 문화행사가 더 빛을 발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문화특특

1인 1문화시대, 나의 꽃은?

김을현_문학인협동조합 이사장, 시인, 포토페이지

1인 1문화시대, 나는 어떤 문화예술분야에서 한송이 꽃을 피우고 있는가. 나만의 책 한권 사진 한장 내가 사랑한 노래며 그림들... 과연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여 이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을 다해 꽃피운 준비를 하고 있다면 바라는대로 될 것을 믿는다.



정율성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양림동 공공미술 프로젝트- 주민디렉트 프로그램 중에서

발산예술인촌 선포식 및 설명회

2014년, 새봄이다. 사방에서 작년에 피었던 꽃들이 새롭게 피어난다. 생을 가진 모든 것들이 꿈틀꿈틀 이어달리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향기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가 우러난다. 문화수도 예향광주의 곳곳에서 문화의 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다. 최근 발산동 산동네에 '발산예술인촌 선포식'이 있었다.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고 85억을 투입하여 <별이 뜨는 발산예술마을>로 가꿔 간다고 한다. 발산동은 도심공동화로 인하여 폐가가 산재해 있고, 좁은 산비탈의 골목길은 두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았다. 광주 스포츠의 영웅, 양학선 선수가 살던 집 앞에 서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구나' 하는 복받치는 감정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곳을 개발하여 지역공동체, 예술인들의 창작터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문화융성의 기틀로 삼겠다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양림동 문화역사마을도 광주근대화의 관문이었던 만큼 다양한 문화예술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사업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금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양림동 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하여 오월어머니집, 양림동 주차장 사업과 양림동을 모토로 하는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문화마을가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특별히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양림동 주민디렉터' 사업을 보며, 지자체와 주민, 예술가의 협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 모든 것들이 광주의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개척해 가는 노력이므로 출발동시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림동의 전통가옥 및 골목길, 양림동의 기독교문화, 문학과 음악, 그 하나하나가 행복의 통로가 되어 세계인과 소통하는 관광 문화광주를 꿈꿔본다. 2015년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하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다. 우리가 소망하던 가까운 미래가 열린다. 모두 내 것이며, 함께 하는 것이라는 주인의식으로 동참하여 후회 없는 내일을 열어가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던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지금이란 문화의 꽃에는 나의 열정과 땀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등산, 광주천, 우리 생활의 터전 곳곳이 문화유산, 유적임을 말할 필요도 없다. 21세기는 개개인의 행복시대라고 일컬어진다. 1인 1문화시대, 나는 어떤 문화예술분야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고 있는가.

문화예술을 표현할 때 '꽃피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사람들의 의식주, 희노애락을 통 털어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한다. 나만의 책 한 권, 사진 한 장, 내가 사랑한 노래며 그림들... 과연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여 이 시대를 갈망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을 다해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면 바라는 대로 될 것을 믿는다. 우리 생활의 주변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들을 찾아서 예향 광주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가자. ♪

문화특목

〈청년문화허브 무한〉 소개합니다!

정두용_청년문화허브 무한 대표



Wor d! water 프로젝트(전남대학교 운동장)

‘청년문화허브 무한’을 한 마디로 하자면 청년들의 문화기획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문학, 축제, 영화, 여행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기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문화를 즐기는 모임, 문화를 배우는 모임, 문화를 생산하는 모임, 청년문화단체들을 연결하는 모임이라는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비영리 단체입니다.

무한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서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하자면, 광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집 주인으로서, 창조자로서 집에서 살고 있나? 광주가 창조도시,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인집에 방문한 손님 혹은 기껏해야 주인집에 얹혀사는 하숙생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문화부, 시청, 혹은 문화기관들에서 이미 차려놓은 밥상의 사업대상 혹은 자원활동가나 임시직 정도의 도우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한 번 주인으로 즐겁게 살아보자! 싶어 2013년 2월 ‘무한’은 그렇게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진지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저 문화예술을 즐기는 20, 30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릴만한 커뮤니티가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어서 함께 모여 같이 축제도 가고, 전시도 보고, 여행도 가고, 문화 이야기도 하면 재밌겠다 싶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모인 거 문화를 즐기는 모임에 그치지 말고 청년들의 문화기획학교로써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면 더 의미 있고 즐거울 것 같아 함께 문화예술에 관해 공부하고, 인디문화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해 오면서 일 년여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무한을 대표하는 프로젝트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무한의 아지트인 탱자하우스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공부하고 인디문화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유유자적 문화기획스터디’ 일명 유자 스터디가 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매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발상이 나오는

등 서로 큰 영감을 주고받는 흥미진진한 자리입니다. 유자 스터디의 중요한 점은 단순한 공부에 그치지 않고 워크숍을 거쳐 실제로 문화프로젝트로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광주의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로 답사를 해보는 ‘구석구석 광주여행’ 프로젝트와 매주 한 번씩 북구FM 시민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너의 음악을 들려줘’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광주여행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이들이 광주에 가볼만한 곳이 어디 있어? 어디가 좋아? 라고 흔히 묻는 질문에 무등산과 충장로 말고는 섣뎡 대답하기가 궁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너의 음악을 들려줘’는 유자 스터디의 코너 중 하나로 특정 테마를 가지고 같이 음악을 감상하던 부분을 발전시켜 시민방송을 통해 실제로 라디오 프로를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청년들 누구라도 무한에서 함께 놀다보면 자연스럽게 생활문화기획자, 인디문화기획자가 되어 광주라는 집에서 주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와 영감을 주는 청년문화기획학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도시가 된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나 광주시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 스스로가 단지 즐겁다는 이유로,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생활 속 문화기획자, 아티스트로서 활동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한은 문화를 주제로 마음 맞는 동료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열린 모임, 즐겁고 재밌는 일을 함께 꾸며보는 프로젝트 기반의 모임입니다. 20대 청년 누구나 자유롭게 무한의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회원과 후원회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뭔가 기발하고 재밌는 상상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싶은데 같이 할 동료를 찾고 있다면! 문화계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편하게 멘토링 받고 싶다면! 문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에너지와 영감을 얻고 함께 즐기는 자리를 원한다면! 편안하게 놀러 오세요. 무한의 소식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facebook.com/culturemuhan
주소 광주 북구 우치로177 2층(북구 용봉동 1197-4 2층)
청년문화허브 무한 탱자하우스



1, 2. 구석구석 광주탐방
3, 4. 유자스터디

이 생각 저 생각

일기의 진화

박소영 프리랜서

우리가 정식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숙제로서 의무적으로 써야만 했던 그림일기가 아닐까 싶다. 서너 줄 되는 글을 쓴 후, 색연필로 그 날 일어났던 일을 세세히 그려야만 했다. 적당히 혹은 대충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했던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로 진실을 그리기 위해 등장인물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공책 한 면을 꽉 채워 그렸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제는 끝날 것 같던 나의 의무적 일기는 '일기를 잘 쓰는 학생'이 많은 특화된 중학교를 만들려던 교장선생님의 야심찬 목적에 의해 또 다시 쉬지 않고 뻑뻑이 공책에 별다를 것 없는 일상을 적어야만 했다.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그렇듯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쓰기 위해 나는 일기장에 약간의 콤수를 넣었다. 일상의 이야기들이 담긴 만화 같은 그림을 일기장 한 칸에 그려 넣는 방법이었다. 친구들의 얼굴, 그날 먹은 간식들, 학교에서 있었던 사건들, 그렇게 3년 동안 조금씩 그리며 하루 일과를 쓰다 보니, 어느새 그림일기 쓰는 일은 나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나의 습관은 계속 되었고, 나의 만화 같은 일기는 어느 새 반 친구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책이 되어갔다. 친구들은 마치 마감을 독촉하는 편집자처럼 일기를 보여 달라고 졸랐고, 기다리고 있는 독자가 있다는 기분에 들떠 일기가 완성되면 친구들의 반응을 기대하며 일기장을 건네주곤 했었다.

여전히 일기는 계속 되었지만, 친구들에게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친구의 친구까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작은 일상들이나 생각

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컴퓨터를 이용한 틀은 전혀 다루지 못했기에 일단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학년 수준의 그림밖에 그릴 수 없었지만 미끄러운 스마트폰 액정 위에서 손으로 그리는 것이 점차 능숙해지자 나중에는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나 장면도 자유자재로 그리게 되었다.

나의 일기장을 순서대로 돌려보던 것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내 일기장을 손가락 하나로 보는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제 친구들은 잘 봤다며 종이 쪽지를 남기는 대신 댓글을 남기며 다음 일기 업로드할 것을 독촉을 한다.

나의 일기내용도 또한 진화했다. 일상의 이야기를 그리다가 지금은 나의 깊은 생각이나 혹은 철학이야기를 올리기도 한다. 예전의 그림일기들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유치한 것들도 많지만, 그러한 율체가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일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상의 이야기만을 그리던 나에겐 또 다른 그림일기 목표가 있다. 바로 광주의 문화 행사나 장소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하여 광주시민이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광주에는 정말 좋은 문화공간과 행사가 많지만 막상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몰라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문화를 공부하고 또한 광주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앞으로 나의 목표를 꼭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일상의 그림일기가 궁금하시다면
blog.naver.com/bluebi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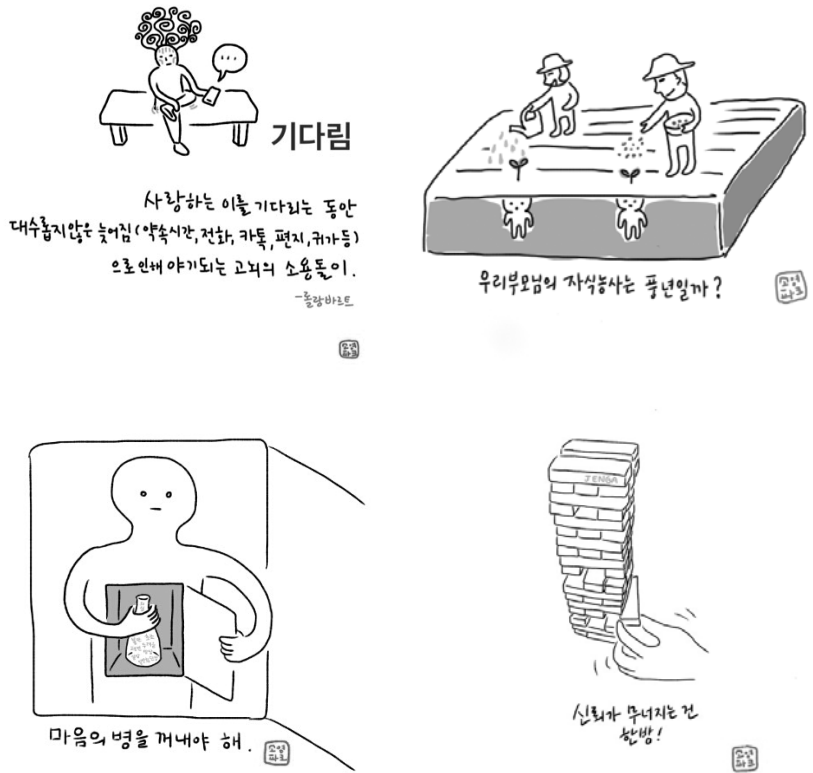


그림 일기장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업 콘텐츠 결과 보고회



호남기록문화유산사업 콘텐츠 결과 보고회가 지난 1월 13일(월) 오후 2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우리 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결과물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대중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한편, 오늘 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수정 보완되는 대로 언론홍보와 교육청, 각 급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본 사업의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계획이다.

2013 호남기록문화유산 사업 최종 평가회 열려



호남기록문화유산사업 최종 평가보고회가 지난 1월 21일(화) 오후 4시에 본 사업 주관 단체와 연구원, 평가위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금수장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평가보고회는 우리 재단과 전

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고봉 기대승 선양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 사업과 고봉 기대승 문적 한글화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각 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평가와 제언을 통해 본 사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제10회 학술포럼 <호남기록문화유산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주제로 열려



우리 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대표 김대현)은 '호남기록문화유산과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를 주제로 제10회 학술포럼을 1월 22일(수) 오후 3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개최했다. 학술포럼은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사업의 현황'에 대해 김대현 전남대 교수의 현황 발표, '기록문화유산의 전당콘텐츠와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민인철 광주발전재단 연구위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주필이 좌장을 맡아 박광석 광주시 문화예술과장,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실장, 서정현 (사)한국학호남진흥원 기획실장, 양균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 이종욱 아시아문화개발원 정보원 사업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사이버광주읍성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 『광주읍성』 종합보고서 발간하다.

우리재단은 광주읍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복원이 현실적으로 지 난하고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대안으로 광주시의 지원으로 진행된 광주읍성을 사이버 상에 구현하기 위한 자료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광주읍성 보고서'를 책으로 발간했다.

재단소식

광주읍성에 대한 실체를 전해주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광주읍성과 관련된 최초의 종합적인 기초자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광주 전남 권 문집해제, 고지도, 일기, 각종 광주읍지, 근현대 신문, 회화, 증언 등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 150여건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담았다. 특히 광주의 관문인 공북루(현 광주학생운동기념탑)에서 왜란과 호란 때에 의병창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석전 김억령, 제봉 고경명, 면앙 송순 등 문인들이 동헌, 회경루 등 광주읍성 곳곳에서 지은 시와 기록 등을 발굴하는 등 옛 선인들의 발자취를 충실하게 쫓아갔다. 보고서는 광주읍성과 관련된 유·무형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성곽, 성문, 관아, 정자, 향교, 제단, 유물 등 공간뿐만 아니라 고을수령 자연경관, 문화유산, 민속놀이까지 확대해 입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록으로 박선희 선생과 이흥수 선생의 구술 및 120여편의 광주읍성 관련 시문의 원문을 실었다.

재단 임원 및 시민문화단체 실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



재단 임원 및 시민문화단체 실무자 20여명이 지난 1월 24일(금)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를 다녀왔다. 이번 탐방은 내년 전당 개관을 앞두고 시설물은 오는 10월에 완공되는 점에 착안하여 광주 신 성장 동력의 성장 엔진이자 문화도시로 변모시키는데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당 투어를 통해 조성사업의 미래를 그려보고 지역 사회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탐방에 도움을 주신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조직

재단 임원과 사무처 번개팅 열려



재단 전체 임원 번개팅 모임이 2013년 12월 26일(목) 오후 6시에 한겨레식당에서 30여명의 임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재단 임원과 사무처와의 소통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이날 모임에서 강동완 후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재단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2014년 갑오년에는 계획하신 일 소원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37차 운영위원회 열려

제37차 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수) 오후 6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김정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2014년 사



재단·회원소식

업·예산 추경 및 조직개편 논의, 운영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회의 결과 임기 만료된 운영위원은 본인의 사임을 요청하거나 여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키로 했으며, 조직은 위원회와 연구소와의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전제로 의결하였다.

2014년 제1차 정기이사회 열려



2014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월 24일(월) 오후 6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백수인 이사장의 주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2013년 감사결과보고서, 2014년 사업·예산 추경 및 조직개편 등을 안건으로 다루어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본인이 사임 요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이사와 관련된 후임 절차는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로 임원회의에 위임토록 하였다.

제27차 진흥이사회 열려



제27차 진흥이사회가 지난 2월 26일(수) 오후 6시에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강동완 진흥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회칙

에 의거하여 올해 기부금을 일괄적으로 재단 기금 및 목적사업비로 기탁하기로 의결하고 후속 조치는 사무처에서 추진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진흥회 사업 및 예산, 임기 만료된 진흥이사 선임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회원소식]

백수인 이사장, 중국 광둥외국어외무대학교 초청되다.

백수인 이사장(조선대 교수)이 중국 광둥외국어외무대학교 초청으로 2013년 12월 10일 중국을 방문한다. 백 이사장은 중국에 체류하는 6주 동안 광둥외국어외무대학교, 남국상학대학 등 광둥성 소재의 여러 대학에서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강좌”를 열어 한국 전통문화의 특성과 우수성에 대해 강의하였다. 한편 백 이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간 광둥외국어외무대학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어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문화” 등을 강의한 바 있다.



강동완 회장,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지구촌 봉사단’ 창립 ‘의료봉사센터’ 개설하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병원 교수들이 아시아 유학생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령인 및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단을 창립하고, 진료센터를 개설한다.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흥중 교수)과 치과병원(병원장 안중모 교수) 소속 교수 30여명이 2013년 12월 7일 ‘지구촌 봉사단’을 창설하고, 의료봉사센터를 개설한다. 지구촌 봉사단 추진대표 강동완 교수는 “지구촌 봉사운동을 집단지성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나눔의 실천 의미로 100만 친구 지구촌 봉사단(추진대표 교수 강동완)을 창립하고, 의료봉사센터를 개설해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나눔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발행

오건규 재단이사, 전남대병원, 한국화가 오건규전 개최



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매화·연꽃·동백 등을 소재로 한 ‘봄이 오는길’ ‘선운사 동백’ ‘꽃을 따다가’ ‘애련도’ 등 최근작 20여점이 선보인다. 먹빛의 담백함과 정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의 질서가 완전한 절제와 소박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초연함을 공감하게 된다.

—〈아시아경제〉발행

이상갑 재단회원(변호사), ‘공익대상’ 받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무료변론에 나선 이상갑 전 광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변호사 공익대상을 받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은 2월 10일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에 이상갑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경기), 최봉태 변호사(대구) 등 3명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보〉발행

재단·회원소식

진시영 운영위원, 박찬호 선수와 협업작업-서울시 DDP 개관기념전 초청되다.

광주의 대표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박찬호 야구선수와 ‘공의 속도’의 주제로 협업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진 작가는 3월 열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개관기념전에 초청, 박찬호 선수의 투구모습과 야구공의 스피드를 빛의 흐름 시리즈로 승화한 영상 설치를 선보인다. 그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선수의 투구모습을 직접 특수 프로그램과 함께 촬영해 공이 역동적으로 날아갈 때 잔상을 남기는 모습을 담는다. 이번 영상 작품은 진 작가의 LED 디스플레이에 영상 표출과 함께 단상에 영상 프로젝션과 전시된다. 한편 이번 DDP 개관기념 특별기획전은 서울 디자인재단 주관으로 3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시된다.

—〈광주매일신문〉발행

이성일 진흥이사, 광주 서구청장 출마 선언하다.

민주당의 숨은 정책통으로 알려진 이성일(50) 광주시당 부위원장이 64지방선거 광주 서구청장 출마에 나선다. 이 부위원장은 2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서구, 모두의 행복 공동체’를 슬로건으로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 ‘민주당의 지킴이’, ‘민주당의 정책통’이란 닉네임을 가진 이 부위원장은 다양한 정치경력과 함께 현재 광주 서구 감이 지역구인 박해자 의원 전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웨이〉발행

양혜령 재단이사, 광주 동구청장 출마 선언하다.

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가 광주 동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새정치연합’에 몸을 담고 있는 양 대표는 2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오직 동구를 살리겠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이 된다면 임기 내에 동구를 호남 상권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단·회원소식

양 대표는 “이를 위해 ‘동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주민적 자
공심을 높이겠다”며 학동 백화마을 백범기념관 건립, 노인들을 대
상으로 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 소규모 다세대 실속형 주택 건립,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정책 실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지역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 〈광주드림〉 발췌

오형근 진흥이사, 광주 동구청장 출마 선언하다.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은 2월 20일 “일
자리 창출을 통해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
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
다. 새정치연합 측 오 원장은 이날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정
치문화의 정착과 새 인물 선택으로 전통
이 살아 숨 쉬는 훈훈한 동구 건설을 함
께 일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호남은 지난 30여 년 일당독주 체제의

지역 정치지형도 속에서 유권자 선택의 폭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새
정치연합의 출현으로 비교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며 “새정치연합
의 출현을 통해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참정치를 일궈내자”고 호
소했다.

— 〈뉴스1〉 발췌

김상집 진흥이사, ‘어르신이 살기 편한 동네’ 출판기념회 열다.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인 김상집 전 참
여자치 21 대표는 3월 3일 광주 알펜시
아 컨벤션홀에서 ‘어르신이 살기 편한
동네’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주선 의원과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시민운동 현장과 일상생
활 속에서 체감한 정치와 지방행정을 바
라보며 느낀 지역사회의 갈등해소 방안과 새로운 비전을 책에 담았
다”면서 “지방 정부도 능동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지 시스템 구축
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광주일보〉 발췌

강동완 회장, (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 광주 동구에 메세나 하우스 개소하다.

10여 년간 글로벌 봉사 연구 사업과 함께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사)생명존중 지구촌 연대대표 강동완)에서는 지난 2월 정식 사단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3월 21일 광주 동구 동계천로 151-5에 봉사
와 회원들 활동을 위한 메세나 하우스를 오픈했다.
지구촌 연대는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시점에서 의료,
인문, 과학, 공학 및 디자인 분야 등의 글로벌 교육, 연구, 산학협
력, 인력양성 및 봉사 사업에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여 광주를 생명존중의 아시아 르네상스 허브로 추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NGTV〉 발췌

허달용 운영위원, ‘봄꽃…매향전’ 초대전 열다.

한국화가 허달용(51)이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광주 수원동 장
덕도서관 갤러리에서 ‘봄꽃…매향전’을 연다. 허 화백은 이번 전시
에서 월야관매 10점, 소나무 20점, 대나무 5점 등 40여점을 선보
인다. 지난해 구례로 화실을 옮긴 허 화백은 한겨울을 이겨내고 봄
을 맞이하는 매화를 새롭게 빚어냈다.
이순의 세월을 넘긴 화가가 도시의 화색을 버리고 지라산의 푸른
밤을 매화에 녹여낸 것도 과거 그가 보여 왔던 검은 하늘의 ‘월야
관매’와 또 다른 느낌인 ‘양증함’으로 다가온다. 기존 한국화의 매
화가 던지는 고결과 품격의 자리에 대신 ‘살가운 벗’과 ‘소품’으로
매화를 우리의 안방으로 들여 놓은 것이다.

— 〈뉴스1〉 발췌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바랍니다.

- 민인철 운영위원회 부친상
- 이철우 이사 모친상
- 김용석(좋은 수 카페 사장) 회원 부친상

재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최영태(전남대 교수) 회원 전남대학교 교무처장 임명
- 김향득 회원 <5·18항쟁탑 풍경전> 5.25~5.31,
빛고을문화관 1층 갤러리

2013년 재정보고

2013년도 재단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 : 원)

수 입 부			지 출 부		
관	항	금 액	관	항	금 액
총 계		838,946,141	총 계		838,946,141
기부금	소계	150,446,700	목적 사업비	소계	490,450,169
	임원보수금	13,050,000		지역문화발굴콘텐츠	417,933,736
	회비수입	32,173,000		지역탐론 및 교류	29,166,250
	특별후원금	105,223,700		지역문화커뮤니티	31,268,023
기부금	소계	531,225,000	경상비	회원사업	11,126,160
	프로 젝트 수입	문화체육관광부	420,000,000	연대사업	956,000
		광주시 및 광주문화재단	91,000,000	소계	127,395,972
		복구청	4,560,000	인간비(상여금 포함)	85,400,000
	참가비	회원교류사업	11,330,000	회의비	1,185,700
	광고협찬금			사무실운영비	5,764,700
				사무행정비	6,354,456
사업 외 수입	소계	7,894,320	경상비	복리후생비(대외활동·퇴직금 포함)	20,425,480
	이자수입·국세환급	7,894,320		업무추진비	5,196,436
				비품구입비	1,293,600
특별회계	고봉선생문적한글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지원금+결산이자)	100,015,883	특별회계	고봉선생문적한글화사업	84,169,120
수입합계		789,581,903	지출합계		702,015,261
전년도 이월금(2013)		49,364,238	차년도 이월금(2014)		136,930,880

※차년도 이월금 : 프로젝트사업(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고봉선생문적한글화)
명시이월금(77,426,503원) 포함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백수인 조선대 국어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희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사〉
김나복 변호사
김대현 전남대 교수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장
김병기 전남대 교수
김윤기 전 아트광주 운영감독
김하림 조선대 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주필
박요주 세무사, 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서순복 조선대 교수
선현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양형렬 국제로타리 전 총재
양혜령 치과 의사, 전 광주광역시의원
오건규 화가
윤만식 광주민예총 대표
이기훈 상임이사
이민원 광주대 교수
이연수 광주MBC 경영기획국장
이재의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소장
이철우 전남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소장
정현애 광주광역시의원
조원탁 동신대 교수
지형원 문화통 대표
차일현 세무사, 전 조선대 교수

〈감 사〉
천형욱 변호사
염낙귀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정희 광주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승권 조선대 교수
위 원 김용민 송원대 교수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팀장
 민인철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향준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 연구원
 정봉남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이사
 조덕진 무등일보 아트플러스 편집장
 허달용 화가, 전 광주민예총 대표
 한예원 조선대 교수

〈시민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도일 문화평론가
위 원 김양균 열썬 대표
 김혜선 아시아문화개발원 연구원
 이병욱 전남문화산업진흥원 기업유치팀장
 정민룡 북구문화의 집 관장
 정한기 디자인 바우하우스 대표
 주 홍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함께하는 사람들



지역문화진흥회

〈회장〉
강동완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부회장〉
오형근 오형근성형외과 의사
김경욱 약사

〈진흥이사〉
김상집 5·18공법단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 성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지역활성화연구소장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영주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용혁 SKY영재교육원 원장
이 강 민족경제연구소 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이성일 호남매일신문 사장
이원형 호남대 교수
정병수 남부대 교수
정선택 (주)대운광고 대표
정재원 나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최무진 나눔테크 대표이사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목포지회장
황재익 (주)BioOrigin 대표이사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김원중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김민정 사업팀장
강리정 총무간사



편집 후기

지천에 폭설처럼 꽃이 피는 4월이다.
날리는 꽃잎을 보며 역사를 춘추春秋로 불렀던
동양의 관습을 떠올린다. 자연의 순리...

『창』 봄호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 각계의 생각을 정리
해 보았다. ‘매물비용의 오류’는 이미 지불한 비용이 아까워서 다른 합리적인 선택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린 어긋남들.
모든 의사결정은 언제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던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샘이 솟고, 꽃이 핀다. 지역의 큰 어른이신 범대순 시인이 들려주시
는 철학적 담론- 시 이야기나 국립나주박물관과 광주극장을 둘러본 문화현장과 일기의 진
화는 눈여겨 볼만한 읽을거리가 될 듯 싶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는 행복에 이르기 직전의 순간이라고 한다.
마지막 교정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엉뚱한 질문을 떠올린다.
스마트한 생각을 정리해 육고를 보내주신 필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